

나의 여름날은 다시 오지 않으리



김 자 영
<방송작가>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 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국민가수 조용필의 노래... “여행을 떠나요” 가사의 일부분이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하는 것은 단연코 여행이 아닐까 한다. 여행가기 위해서 여름을 기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여름은 그 어떤 여행지와도 잘 어울리는 팔방미인 같은 계절이다.

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여행에 대한 추억이 있다. 98년 8월 13일에서 18일까지 5박6일간 이어졌던 강원도 동강 여름캠프...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행은 아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취재를 위한 출장이었다. 이 캠프는 100여명의 장애인과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한 자연체험캠프였다. 내가 취재하려고 한 내용은 이렇다. 앞이 안보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폐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가족들과 떠나서 캠프에 적응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고,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려는 것이다.

이전까지 나의 출장길은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꽤 우아한 적도 있었다. 운 좋게도 경치가 끝내주는 장소로 출장을 가서, 꽤 괜찮은 호텔에서 묵게 되더라도 하면, 맥주 한 캔 들고 발코니로 나가 불어오는 바람맞으며 그날 인터뷰 했던 내용들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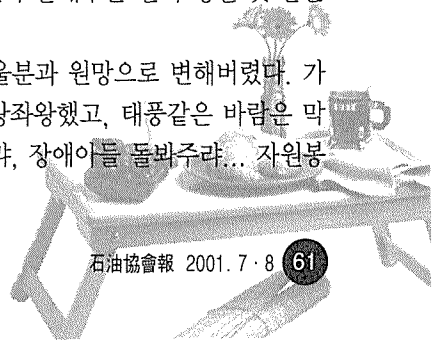
리하고, 원고 쓸 부분까지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출장은 달랐다. 옷가지를 배낭에 싸고, 덮고 잘 침낭에, 쌀과 라면까지 싸갖고 가는 출장길이었다. 철저하게 장애인 캠프 일행과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출발지에 도착하고부터 뭔가가 잘 못 되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 이름이 취재진이 아닌,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에 자원봉사자 명단에 끼어있었고, 내가 5박6일 동안 뒤치다꺼리 해줘야 할 아이들이 돌이나 되는 것이었다. 그것도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었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이미 이렇게 정해진 것... 싫은 내색하면 캠프 떠나는 분위기 망칠테고 장애인들과 함께 자고 먹고 하면 취재에 더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다. 한편으로는 취재하는데 설마 굶은 일이야 시키겠어? 라는 기대도 있었다. 서울에서 약 4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정선에 광하초등학교였다. 텐트를 치고, 저녁밥을 해 먹고.... 그때까지 나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취재진으로 캠프 첫째날을 보내는 풍경을 담아냈다. 다른 조에 가서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가 어울리는 모습도, 시끄럽게 떠드는 풀벌레 소리도 담았다.

캠프 둘째날 아침, 비좁은 텐트에서 아이들과 끼어 새우잠을 자긴 했지만, '여행을 떠나요' 2절 가사처럼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 속을 벗어난" 기분은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쾌했다. 둘째날에는 조 금은 위험한 동강 래프팅이 있었다. 래프팅 할때 물에 젖거나 배가 뒤집혔을 때를 대비해서 비싼 취재장비들이 물이 젖지 않도록 하는 예비훈련까지 하면서, 나는 취재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슬슬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아 6명과 인솔교사 하나 어른 3명에서 한배에 타는데, 노를 저을 사람이 부족하니 나보고 노를 저으라는 것이다. 동강에 세찬 여울목은... 취재를 하면서 노까지 저으라고? 차츰하다가 배가 뒤집히고, 내가 물에 빠지면? 그러다 다리가 바위 사이에 끼이기라도 하면? 별의 별 생각이 다 스쳐지나갔다.

하지만, 이것도 어찌겠는가..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다음 목적지로 가던가 아니면 나 혼자 동강을 헤엄쳐 가야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를 악물고, 시각장애인들을 태운 배가 동강 래프팅 길에 올랐다. 다행히,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컹컹 울리는 세찬 물소리가 신기했는지 환호성을 지르며..무서움을 즐기고 있었다. 취재는 너무도 잘 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정도 원하는 것들을 담았고, 동강 물살도 잔잔한 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동상에 걸릴만큼 차가운 동강에 몸을 던졌다.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처럼... 풍덩~~ 흘러가는 동강 물길에 몸을 맡기고, 동강의 비경을 감상했다. 깎아지른듯한 절벽, 곳곳에 보이는 신비스런 동굴들, 뻥뻥이 수놓여진 나무들... 흔한 표현이지만 한쪽에 그림이요,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병풍 같았다. 노를 저어 동강을 내려오는 내내 이번 출장동안 뭔가 끝내주는 일이 생길 것 같은 흥분과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다.

하지만, '가수리' 라는 마을에 도착하고부터 이런 나의 흥분과 설렘은 울분과 원망으로 변해버렸다. 가수리에 도착하자마자 내리기 시작한 장대비 세찬 빗줄기에 장애인들은 우왕좌왕했고, 태풍같은 바람은 막 치기 시작했던 텐트 구조물을 사정없이 쓰러뜨렸다. 날라가는 텐트 붙잡으라, 장애인들 돌봐주라... 자원봉



사자와 인솔교사들은 혼이 나갈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나는 취재장비부터 챙겼다. 비에 젖는 날에는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것을 날리는 꼴이 된다. 수건으로 닦고, 비닐에 싸고 또 싸고, 가방에 챙겨놓고 한숨을 돌리려는데 문득 생각난건 나의 아이들....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조 아이들이었다. 그나마 지체 장애인들은 앞이 보이기 때문에 빗줄기를 피할 줄 안다. 하지만, 우리조 아이들은 누군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꼼짝달싹 하지 못한다.우산도 내 팽개치고 뛰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앞을 보지 못하는 5명의 아이들이 서로를 놓칠세라 손에 손을 잡고 그 세찬 비를 고스란히 다 맞으며 꼼짝없이 서 있었다. 왈각 눈물이 솟았다. “자.. 따라와..” 한 아이의 손을 잡았다. 다른 4명의 아이들은 길을 잃을까봐.. 자신들이 눈이 되준 나를 의지한 채.. 일렬로 따라왔다. 피난처가 된 가수분교 안은 난장판이었다. 3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쳤다. “비켜요! 비키란 말이야.. 너희들은 앞이나 보이지..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안보인단 말이야!!” 우리 애들? 어느새 난 아이들에 엄마가 되 있었다. 앞 못보는 아이들이 불편해 할까봐.. 단체생활에 규칙을 어기는것임을 알면서도 우리 조 아이들만 민박을 시켰다. 아이들 옷을 벗겨 씻기는 일도 귀찮지 않았다. 가수리에 머무는 3일동안.. 단 하루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갈아입을 옷도 다 떨어졌고, 준비해온 음식도 다 떨어졌다. 돈을 모아 옥수수 밭을 샀다. 토종닭도 샀다. 밭에서 난 야채들도 샀다. 이제 난 취재온 방송작가이기 보다 우리 조 아이들에 엄마로 지냈다. 씻겨줘야했고, 아이들에 주린 배를 채워줘야했고, 심심하지 않도록 놀아주고, 옛날얘기해주고, 밤이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향 피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잠은 하루에 세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서, 무섭게 불어나는 동강물을 보면서 서울에 어떻게 가나? 방송은 어떻게 하지? 를 걱정하기 보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제발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지내주길 바랐다.

캠ป์ 나흘째 운영진에서는 결단을 내렸다. 다음 날까지 날이 개지 않고, 불어난 강물이 줄지 않으면, 산을 타고 넘자는 것이다. 백여명의 장애인들을 데리고...앞 못보는 아이들을 데리고 말이다. “그래. 어디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이래서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나보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런 내 용기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뜨거운 아침햇살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5박6일에 악몽같았던 나의 출장은 끝이났다. 요즘 동강은 댐 건설 백지화 이후로 인심도 자연도 많이 황폐화 됐다고 한다. 나와 내 아이들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추억에 그 장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이제와 다시 동강을 찾아간다고 해도...웬지 그때의 향수를 느끼지 못할 것 같다.

가수 이정석이 불렀던 여름날의 추억의 가사처럼...1998년 여름.. 동강에서의 기억은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이 되어 이제 추억이 되어 나의 여름날은 다시 오지않으리”가 된 것 같다. ♡